

한국판 정신적 오염 척도의 타당화

이 우 제	김 창 대 [†]	박 찬 훈
센트럴플로리다대학교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교수	오하이오대학교 박사과정

본 연구는 정신적 오염 척도(Vancouver Obsessive Compulsive Inventory-Mental Contamination)의 한국판 타당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정신적 오염은 오염물질과 신체적 접촉 없이도 더러움을 느끼는 심리적 현상으로, 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의 다양한 증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증상의 심각도와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정신적 오염 척도는 Rachman(2004)의 이론에 기반하여 정신적 오염 현상을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역번역 방법을 통해 한국어판 정신적 오염 척도를 번안하였고, 만 16세 이상의 한국인 550명을 대상으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단일 구조를 확인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척도의 단일 요인 구조가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였으며 수렴 타당도는 정신적 오염과 강박장애 증상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지지되었다. 또한 강박장애 상위, 하위 집단 간 정신적 오염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척도의 변별 타당도가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신적 오염, 정신적 오염 척도, 강박장애, 오염에 대한 두려움

[†] 교신저자 : 김창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Tel: 02-880-7633, E-mail: cdkim@snu.ac.kr

강박장애(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는 강박 사고와 강박행동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과 일상 기능에 장애를 겪는 정신질환으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흔히 발병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는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될 수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강박 장애는 1980년대 이후 역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적 흔한 질환임이 밝혀지기 시작했는데(홍진표 등, 2009), 미국에서의 평생 유병률은 2.3%(Ruscio et al., 2010), 우리나라에서의 평생 유병률은 0.8%로 보고된 바 있다(홍진표 등, 2009).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강박장애로 진료받은 환자의 수가 2009년과 2013년 사이 약 2만 1천명에서 2만 4천명으로 13% 가량 증가하였고(박성훈, 2014) 2015년과 2019년 사이에는 2만 4446명에서 3만 152명으로 23%가 증가하였다(변해정, 2021). 이를 통해 강박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국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정신과적 진단을 받지 않은 일반인도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쉽게 경험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더 많은 수의 일반인이 해당 증상을 겪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선행 사건에 의해 촉발된 강박적 사고가 불안을 유발하고,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충동적인 강박행동이 동기화되는 것이 강박장애 증상 발현의 대표적인 메커니즘이다(Penzel, 2017). 강박장애에 대한 상담 개입은 이러한 메커니즘에 변화를 야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노출 및 반응방지법과 같은 행동적 접근이 활용되어왔으나 잦은 중도 탈락과 치료 거부(Abramowitz, 2006; Foa et al., 2005), 낮은 회복률(Fisher & Wells, 2005)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제한된 상담 효과는 개입의 기반이 되는 이론이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위험요인 간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한 탓일 수 있다(Clauss & Bardeen, 2022). 따라서 강박장애와 관련된 요인 간 관계를 추가적으로 탐구하여 증상의 발현, 유지, 발달의 과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박장애 증상을 보이는 개인은 오염 및 청결, 대칭이나 정렬, 확인, 도덕적 결함 등 다양한 주제에 집착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오염에 대한 두려움은 강박장애 증상 가운데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주제이다(Rachman, 2004; Rasmussen & Eisen, 1992). 더불어 오염에 의한 위협의 가능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유발될 수 있는 과도하고 충동적인 청결행동 역시 강박장애의 다양한 충동 유형 중 확인행동 다음으로 두 번째로 흔하다(Foa & Kozak, 1995; Rachman et al., 2014).

전통적으로 오염에 대한 두려움은 접촉 오염(contact contamination)을 중심으로 연구돼왔다. 접촉 오염이란 더럽거나 위험한 물질이나 사람, 장소와의 물리적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더러운 느낌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Rachman(2004)은 접촉 오염과 구별되는 정신적 오염(mental contamination)이란 개념을 제안하였다. 정신적 오염이란 식별 가능한 오염물질과의 신체적 접촉 없이도 내적인 더러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적 오염을 겪는 이들은 더럽거나 혐오스럽거나 비도덕적인 사람이나 사건, 사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더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떨쳐내기 위해 씻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다(Mathes et al., 2019). 정신적 오염은 혐오감, 불안뿐 아니라 비도덕성, 수치심 등과 강한 관련성을 보인다는 점(Jacoby et al., 2018), 씻는 행동으로는 오염의 수준이 완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접촉 오염과 구별된다(Herba & Rachman, 2007).

제거할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청결행동 만으론 되려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어 정신적 오염의 자연스러운 쇠퇴를 막는다(Coughtrey et al., 2014).

다수의 연구들에서 정신적 오염의 존재를 지지하는 경험적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Fairbrother과 Rachman(2004)은 성폭행 경험이 있는 50명의 여성들 중 70%가 성폭행 사건 이후 씻고 싶은 충동을 느꼈음을 보고하였고, 성폭행 사건을 회상하는 것은 내적 더러움과 씻고 싶은 충동을 재유발하였다. 이 외에도, 합의하지 않은 키스 패러다임(non-consensual kiss paradigm)을 활용한 실험 연구들에서, 합의하지 않은 키스를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들은 여성들은 합의 하에 이뤄진 키스를 떠올린 여성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내적 더러움과 씻고 싶은 충동을 보였으며(Fairbrother et al., 2005; Herba & Rachman, 2007), 입을 행구고 손을 씻는 등의 청결행동을 보였다(Herba & Rachman, 2007). 또한 Krause와 Radomsky(2021)와의 연구에서는 합의하지 않은 키스 패러다임을 활용한 실험을 하되 타액의 물리적 교환이 없는 성희롱 상황을 상상하게 했음에도 더러움, 불안, 혐오감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떠올리는 조각을 활용한 실험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다(이유나, 이장한, 2015; Coughtrey et al., 2014; Krause & Radomsky, 2023). 예를 들어 Coughtrey 등(2014)은 40명의 대학생에게 혐오, 수치, 배신, 더러움 등 정신적 오염과 관련된 단어들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자서전적 기억을 회상시켰다. 그 결과, 더러운 느낌과 씻고 싶은 충동이 회상 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이 외에도 Coughtrey 등(2012)은 오염에 기반

한 강박장애 진단을 받은 2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모든 환자들이 신체적 접촉 없이도 오염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보고하였고, 오염물질 외에도 기억, 원하지 않는 생각들, 꿈, 비난 등이 오염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참여자는 정신적 오염에 대한 반응으로 하루에 20에서 50번 손을 닦는다고 보고하였다. Coughtrey 등(2012)의 연구에서는 강박장애 진단 경험이 있는 177명 중 약 10%는 임상적 수준의 접촉 오염 증상 없이 정신적 오염을 겪고 있었고 약 15% 가량은 임상적 수준의 정신적 오염 없이 접촉 오염 증상을 겪고 있었으며 접촉 오염과 정신적 오염을 동시에 겪는 사람은 36%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적 오염이 강박장애 환자들이 경험하는 두드러지는 증상 중 하나이며 접촉 오염과 관련되나 독립적인 현상임을 시사한다.

정신적 오염은 독특한 심리적 현상으로서 주목받는 것을 넘어, 접촉 오염과 관련된 강박장애 증상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서 연구되고 있다(Krause et al., 2020; Mathes et al., 2019; Melli et al., 2014). 예를 들어, Mathes 등(2019)은 높은 수준의 강박장애 증상을 보고하는 88명의 대학생에게 더러운 토사물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내적 더러움을 유발한 후 더러운 사물을 만지게 하여 접촉 오염 경험을 하게 만들었다. 접촉 오염 전, 후 시점에 두려움과 손을 씻고 싶은 충동의 수준을 측정하였는데, 상상만으로 유발된 내적 더러움은 접촉 오염 후와 청결행동 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쳤으며, 청결행동 후의 씻고 싶은 충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적 오염을 경험하는 이들이 오염에 대한 내적인 느낌으로 인해 접촉 오염에 대해 더 높고 지속적인 반응성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관련하여 정신적 오염은 강박장애 증상과 그 위험요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Coughtrey et al., 2018; Krause et al., 2020; Melli et al., 2014). Melli 등(2014)은 오염을 두려워하고 청결 의식(ritual)을 보이는 강박장애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혐오감을 쉽게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혐오 경향성(disgust propensity)이 오염 관련 강박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신적 오염이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자주 혐오감을 경험하는 개인에게 신체적, 심리적 침해나 비도덕적 사고, 충동과 같은 외적, 내적 자극은 정신적 오염을 유발하고, 촉발된 혐오감이 청결행동을 유발하며 강박장애 증상을 강화할 거라 추론하였다(Melli et al., 2014). Krause 등(2020)의 연구에서는 오염과 관련된 강박장애 증상이 자신이 화가 나거나 위협해지거나 나빠질지 모른다는 두려움(feared self-perception)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러한 두려움이 자신의 내적 결함을 자각하는 경험으로서 정신적 오염을 촉발하고 이것이 다시 강박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가설을 세웠다. 626명 대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신적 오염이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접촉 오염 증상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정신적 오염이 강박장애에 대한 개입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 가령 Mathes 등(2019)의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강박장애 수준을 보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출 및 반응 방지 개입을 세 차례 실시하였고, 정신적 오염 경향이 개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개입 이전의 정신적

오염 수준은 세 차례의 개입 후 접촉 오염과 관련된 강박, 충동, 회피행동, 스트레스 수준의 종합 측정치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오염은 개입 2주 후의 낮은 개입 효과와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적 오염이 오염과 관련된 강박장애 증상의 심각도를 높일 뿐 아니라, 이를 간과한다면 상담 개입의 효과 역시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정신적 오염은 주로 접촉 오염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서 연구되었으나(Blakey & Jacoby, 2018; Jacoby et al., 2018),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강박장애 증상과의 관련성이 연구되었다. 예를 들어 강박장애 증상을 오염(contamination), 피해에 대한 책임감(responsibility for harm), 용납할 수 없는 강박사고(unacceptable thoughts), 대칭 및 완벽성, 정확성(symmetry)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했을 때, 정신적 오염은 오염뿐 아니라 다른 세 가지 차원의 증상들과도 정적인 상관성을 보였다(Jacoby et al., 2018). 또한 정신적 오염은 오염 관련 증상을 제외한 강박장애 증상 전반의 심각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임상군과 비임상군 모두에게서 나타났다(Inozu et al., 2016; Radomsky et al., 2014).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신적 오염이 오염과 관련된 증상뿐 아니라 다른 차원의 강박 증상들의 유지, 강화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Blakey와 Jacoby(2018)가 제안한 것처럼, 정신적 오염의 영향을 다양한 강박장애 증상과 관련해 탐구하는 연구 동향은 이 정신질환을 보다 정교하게 개념화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듯 정신적 오염은 전통적인 접촉 오염과 구별되는 경험으로서, 강박장애 증상의

심각도 및 그 회복에 있어 고려될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신적 오염에 대한 학계의 관심에 발맞춰 정신적 오염 수준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역시 일찍이 개발되었다. 정신적 오염 척도(the Vancouver Obsessive Compulsive Inventory-Mental Contamination: VOCl-MC)는 정신적 오염에 대한 Rachman(2004)의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이 정신적 오염 현상을 평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정신적 오염과 관련된 20개 문항들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며,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의 심각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정신적 오염 척도는 비임상군과 임상군을 대상으로 .85~.97 사이의 Cronbach's α 값을 보이며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냈으며(Inozu et al., 2016; Melli et al., 2015; Radomsky et al., 2014)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을 가졌음이 밝혀졌다(Inozu et al., 2016; Melli et al., 2015). 또한 정신적 오염은 오염에 대한 민감성, 오염과 관련된 강박장애 증상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우울과는 이보다 더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adomsky et al., 2014). 또한 오염과 관련된 강박장애 증상을 겪는 환자 집단은 오염과 관련되지 않은 증상을 겪는 강박장애 환자 집단에 비해 정신적 오염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오염과 관련되지 않은 증상을 겪는 강박장애 환자들의 정신적 오염 수준은 강박장애 외의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 집단 및 비임상군의 그것보다 유의하게 높았다(Melli et al., 2015).

한편 국내에서는 정신적 오염 현상의 존재와 특성을 탐구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직 이유나와 이장한(2015)만이 비윤리적 행위를 회상하는 실험적 조작을 활용해 정신적 오염의 영향을 탐구한 바 있다. 이들은 해당

조작이 청결과 관련된 물건에 대한 가치평가 및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도덕성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했고, 높은 도덕성 집단이 낮은 도덕성 집단에 비해 조작 후 청결 관련 물건에 더 높은 가치를 매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정신적 오염 현상이 한국인들에게도 나타나며 특히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진 개인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 정신적 오염을 독립된 심리적 구인으로서 측정하려는 시도는 이뤄진 바 없다. 정신적 오염 증상의 특성을 밝히고, 그것이 강박장애 증상의 심각도나 상담 개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적절한 개입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오염을 안정적이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입각해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오염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만 16세 이상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쳐 한국어판 정신적 오염 척도를 번안하였고, 전체 표본을 무선할당으로 표본 A와 B에 배정하였다. 표본 A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구조를 추정하였고, 내적 합치도 분석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이어서 표본 B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해 요인 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표본을 활용하여 강박장애 증상 및 우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정신적 오염은 강박장애의 하위 증상으로 개념화된 이래(Rachman, 2004) 꾸준히 강박장애와의 관련성이 연구되어 온 만큼, 강박장애 증상과 정

적 상관을 보일 거라 예상하였다. 반면 이론적 연관성이 미약한 우울 증상과는 보다 약한 상관관계를 보일 거라 예상하였다. 추가적으로 강박장애 증상의 상위 25%와 하위 25% 집단을 나눈 후 두 집단이 정신적 오염 수준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함으로써 척도의 변별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절차

질문지의 변안 및 검토

정신적 오염 척도의 원저자 중 한 명인 Roz Shafran으로부터 전자 메일로 척도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2022년 2월 11일 서신교환). 영어로 되어있는 문항들의 한국어 번역을 위해 번역-역번역 방법을 사용하였다(Brislin, 1970). 먼저 두 명의 저자가 각각 영문 문항들을 변안하였고 서로의 것을 비교하여 더 적합한 문항으로 수정하여 1차 변안을 완료하였다. 이후 상담학 전공의 이중언어가 가능한 박사과정생 2인에게 1차 변안본의 적합성을 검토하도록 의뢰하였다. 20개 문항의 적합성을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고, 1-2점에 해당되는 문항들을 대체할 표현과 그 외 추천할 만한 표현을 제시해달라 요청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가 1-2점에 해당되는 문항은 없었고, 추천받은 표현들을 검토해서 문항들을 일부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이중언어가 가능한 상담학 전공 석사과정생 1인이 역번역을 하였으며, 원 문항들과 역번역된 문항들의 의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상담학 전공이 아닌 또 다른 이중언어가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1개 문

항이 2점을 받았고 1, 2저자의 논의를 거쳐 해당 문항의 번역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예비 척도를 마련하였다.

자료 수집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 16세 이상의 남녀 501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남성은 189명(38%), 여성은 312명(62%)이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만 33.2세($SD=12.40$)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전체 표본을 무선할당으로 표본 A와 B에 배정하였고, 표본 A는 신뢰도 및 탐색적 요인분석에, 표본 B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체 표본은 수렴 및 변별 타당도 검증에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SPSS 22.0를 활용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AMOS 22를 사용하였다. 요인추출 방식에 있어선 공통요인분석을 수행하였고, 최대우도법을 추정 모형으로 활용하였다. 최대우도법을 사용할 시에는 자료의 정규성과 적합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왜도, 첨도, KMO(Kaiser-Meyer-Olkin) 적합도,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확인하였다.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3 미만일 때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보았고 KMO 지수가 $>.5$ 이면서 Bartlett 검정이 기각될 때 변인들 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는 정규성, KMO 적합도, 구형성의 기준을 충족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Kline, 2005; Kline, 2011). 또한 Kline(2005)이 적합도 지수 표기에서 RMSEA, SRMR, CFI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제안

한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 시 적합도를 평가할 때 절대 적합도 지수인 RMSEA와 SRMR, 증분적합도지수인 TLI와 CFI를 활용하였다. 평가 기준으로는 RMSEA와 SRMR은 <.08이면 좋은 적합도, <.01이면 보통 적합도로 보았으며, CFI와 TLI는 .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9 이하일 경우 보통 적합도로 평가하였다(홍세희, 2000).

연구 도구

한국판 정신적 오염 척도(Korean version of Vancouver Obsessive Compulsive Inventory-Mental Contamination: K-VOCI-MC)

정신적 오염 척도는 정신적 오염을 경험하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Rachman(2006)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 총 20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며 전체 응답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오염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탐구한 선행연구들에서 정신적 오염척도는 단일 요인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Inozu et al., 2016; Lebrun et al., 2023; Melli et al., 2015), Cronbach's α 는 임상군과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85~.97 사이로 나타나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Inozu et al., 2016; Melli et al., 2015; Radomsky et al., 2014). 본 연구에선 원저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외국어로 되어있는 원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어판 단축형 강박증상목록(Korean version of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 OCI-R-K)

K-VOCI-MC의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OCI-R-K를 사용하였다. 한국어판 단축형

강박증상 목록은 Foa 등(2002)이 강박장애 증상의 빈도 및 증상과 관련된 불편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단축형 강박증상목록(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을 임준석(2007)이 번안, 타당화한 척도이다. 세척, 확인, 정돈, 강박, 저장, 중화 행동의 6가지 하위척도를 지니며 각 하위척도 당 3개의 문항을 포함한다. 응답자는 총 18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증상의 심각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임준석(2007)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90이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이었다. 임준석의 연구에서는 하위척도별 Cronbach's α 값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강혜림(2019)의 연구에서는 세척 .72, 강박 .63, 저장 .75, 정돈 .77, 확인 .76, 중화 행동 .66의 수치를 보였다.

한국어판 백 우울 설문지 2판(Beck Depression Inventory-II: BDI-II)

K-VOCI-MC의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어판 BDI-II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우울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백 우울 척도 2판을 성형모 등(2008)이 번안, 타당화한 것이다. 이 척도는 죄책감, 무가치감, 자기비난 등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 인지, 기운 없음, 흥미 상실, 피곤함 등을 포함하는 신체적인 증상, 그리고 울음, 슬픔과 같은 정서적 증상 및 수면과 식욕 변화의 3요인 구조를 보이며, 각각 6개, 8개, 7개의 문항을 포함한다. 응답자는 총 21개 문항을 0~3점으로 평정하게 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의 심각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성형모 등(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83,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88이었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표본 A는 만 16세 이상의 170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성 63, 여성 10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 연령은 32.17($SD=12.85$)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44로 나타났으며, 문항 제거 시 내적 합치도의 상승이 발생하는 문항이 없으므로 20문항 모두 분석에 포함시켰다. 문항들의 왜도, 첨도가 모두 절대값 3 이내였으며 KMO 지수는 .926, Bartlett 지수는 2267.250($p<.001$)으로 나타나 정규성을 만족하며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공통요인분석의 최대우도 추정법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사용한 선행연구도 존재하지만 수집된 자료가 모집단이 아닌 표본 집단이기 때문에 자료를 표본 집단이라고 가정하는 최대우도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이영준, 2002).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요인 간의 상관이 있을 것이 강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사각회전 방식을 채택하여 직접 오블리민(oblimin) 방식으로 회전을 실시하였다(이은영, 왕은자, 2017). 그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4요인 이후부터 1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3요인 구조의 경우 한 요인이 2문항 이하이므로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져 타당도가 낮다고 판단해 기각하였다(Costello & Osborne, 2005). 따라서 최종 구조 확정을 위해 1요인 구조와 2요인 구조를 비교하였다. 먼저, 2요인 구조의 경우 요인 1에 12개 문항(문항 5, 8, 7, 15, 14, 4, 11, 10, 1, 13, 2, 18), 요인 2에 8개 문항(문항 12, 16, 19, 3, 6, 17, 9, 20)이 배치되었다. 그러나 요인 1에 속하는 ‘나는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특정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느낌이나 오염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더러운 것을 직접 만지지 않았는데도 더럽거나 오염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다.’ 등의 내용이 문항 2의 문항인 ‘나는 자주 이유도 모른 채 더럽거나 오염되었다고 느낀다.’, ‘나는 자주 내 몸 안도 더럽다고 느낀다.’ 등과 내용적으로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사각 회전을 실시할 경우, 구조행렬과 패턴행렬의 결과가 산출되는데 구조행렬은 각 요인이 문항에 갖는 고유한 변량과 공분산을 합한 값을 나타낸다(Nunnally & Bernstein, 1994). 공분산은 상관을 뜻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문항과 요인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행렬을 살펴보았을 때 문항 8, 문항 5를 제외하고 모두 양쪽 요인에 모두 상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원진 등, 2018). 따라서 2개의 요인을 분리할 유인이 부족하여 2요인 구조를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1요인 구조의 경우, 원적도가 1요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누적 분산비율이 1요인 구조만으로 51.22%가 만족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Hair 등(1995)에 따르면 누적분산 비율 50~60%를 적절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또한 스크리드표에서 1요인 이후에 급격하게 경사가 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구조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최소 요인 부하량의 기준을 .30~.50으로 보았는데, 표 1에서 볼 수 있듯 요인별 부하량이 .490~.819의 적절한 수치를 보여 1요인 구조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Kang,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개의 요인 구조를 채택하였고, 이것이 원적도와 동일한 문항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

표 1. K-VOCI-MC(한국판 정신적 오염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인1
1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내적으로 더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다.	.540
2	불쾌한 이미지나 기억을 떠올리면 내적으로 더러워졌다고 느낀다.	.713
3	아무리 꼼꼼하게 씻어도 더이상 깨끗해지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자주 있다.	.754
4	만일 다른 사람이 내게 역겨운 말을 하면, 더럽혀졌다고 느낀다.	.703
5	나는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특정 사람으로부터 더러운 느낌이나 오염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683
6	피부 아래로도 더럽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자주 있다.	.768
7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깨끗해 보이지만 더럽다고 느껴진다.	.625
8	더러운 것을 직접 만지지 않았는데도 더럽거나 오염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다.	.741
9	더럽거나 오염되었다고 느낄 때, 나는 자주 죄책감이나 수치심도 같이 느낀다.	.748
10	나는 자주 더러움에 대한 원하지 않는 불쾌한 생각들을 경험한다.	.771
11	어떤 물건들은 겉으로 깨끗해 보이지만, 더럽게 느껴진다.	.490
12	나는 자주 이유도 모른 채 더럽거나 오염되었다고 느낀다.	.770
13	더럽거나 오염되었다고 느낄 때, 나는 자주 분노도 같이 느낀다.	.681
14	원치 않는 혐오스러운 생각 때문에 오염되거나 더럽다고 느끼는 때가 자주 있다.	.819
15	특정한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더럽거나 오염되었다고 느낀다.	.703
16	나는 자주 내 몸 안도 더럽다고 느낀다.	.787
17	만약 원하지 않는 혐오스러운 생각들을 떠올리면, 씻어야 한다.	.731
18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는 내가 더럽거나 오염되었다는 느낌이 들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500
19	오염에 관한 염려로 머리가 가득 찰 것 같아서 매우 불안하다.	.706
20	나는 마음을 정화할 필요성을 자주 느낀다.	.581

해당되는 1가지 요인을 ‘정신적 오염(Mental Contamination, MC)’으로 명명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표본 B는 A와 동일한 연령대의 331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남성 126명 여성 20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균 연령은 30.70($SD=12.16$)이다. 왜도와 첨도 모두 절대값 3 이내로 정규성을 만족하였으며 KMO 지수는 .957, Bartlett 값은 3725.815($p<.001$)으로 두 값 모두에서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로 판단되었다. 검사의 1 요인 구조가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최대 우도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절대 적합도 지수인 RMSEA와 SRMR은 각각 .085, .0531로 적합하게 산출되었으나 증분 적합지수인 TLI, CFI가 각각 .875, .888로 다소 미흡한 적합도를 보였다. 그러나 적합도는 문항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낮게 나타날 수 있다(김명숙, 2013). 본 척도의 경우에도 ‘나는 자주 내 몸 안도 더럽다고 느낀다.’, ‘오염에 관한 염려로 머리가 가득 찰 것 같아서 매우 불안하다.’, ‘만약 원하지 않는 혐오스러운 생각들을 떠올리면, 씻어야 한다.’ 등의 문항을 살펴볼 때 경계가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정을 증명하기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활용하여 문항 16(‘나는 자주 내 몸 안도 더럽다고 느낀다.’)과 19(‘오염에 관한 염려로 머리가 가득 찰 것 같아서 매우 불안하다.’), 문항 17(‘만약 원하지 않는 혐오스러운 생각들을 떠올리면, 씻어야 한다.’)과 19(‘오염에 관한 염려로 머리가 가득 찰 것 같아서 매우 불안하다.’)의 측정오차에 상관을 설정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TLI, CFI, RMSEA, SRMR이 각각 .892, .904, .079, .057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로 보통 적합도를 보인 TLI를 제

외한 모든 적합도가 좋은 적합도의 기준을 만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항 간의 높은 상관으로 인해 모형의 적합도가 낮아졌을 수 있음을 지지한다. 원칙도의 이론적 배경이 확인되었다는 점, 수정지수 도입 전에도 절대 적합도 지수는 확보되었고 증분적합도 지수도 근소하게 미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용적, 통계적 안정성을 고려해서 받아들일 만한 모형이라고 판단하였다. 아래 표 2는 수정지수 도입 전과 후의 적합도 지수이다.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

K-VOCI-MC의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OCI-R-K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성적 오염 요인은 강박장애 증상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728, p<.01$). 하위척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저장($r=.495, p<.01$), 정돈($r=.458, p<.01$), 확인($r=.582, p<.01$), 중화 행동($r=.590, p<.01$)과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세척($r=.634, p<.01$), 강박($r=.663, p<.01$)과는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N	<i>p</i>	RMSEA (90% CI)	CFI	TLI	SRMR
연구모형	331	<.001	.085(.077~.093)	.888	.875	.531
연구모형(수정지수 적용)	331	<.001	.079(.071~.087)	.904	.892	.501

표 3. K-VOCI-MC(한국판 정신적 오염척도)와 OCI-R-K(한국어판 단축형 강박증상목록)의 상관

	OCI-R-K	세척	강박	저장	정돈	확인	중화 행동
K-VOCI-MC	.728**	.624**	.663**	.495**	.458**	.582**	.590**

주. ** $p<.01$

표 4. K-VOCI-MC(한국판 정신적 오염척도)와 한국어판 BDI-II의 상관

	BDI-II	신체증상	부정적 인지요인	수면, 식욕 변화
K-VOCI-MC	.549**	.514**	.451**	.559**

주. ** $p < .01$

표 5. OCI-R-K 상위 점수집단과 하위 점수집단 간 비모수 T 검정 결과

	OCI-R-K				Welch's <i>t</i> 검정	
	상위 집단		하위 집단		<i>t</i>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K-VOCI-MC	51.62	16.50	4.96	4.44	31.08	<.001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어판 BDI-II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신적 오염 요인은 신체증상 요인($r=.514, p<.01$), 수면, 식욕변화 및 정서증상 요인($r=.559, p<.01$), 부정적 인지 요인($r=.451, p<.01$)과 보통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또한 우울 전체와도 보통의 상관을 보였다($r=.549, p<.01$). 또한 K-VOCI-MC의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OCI-R-K 검사의 상위 25% 집단과 하위 25% 집단의 K-VOCI-MC 점수의 총점을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제시된 두 집단에 대한 Levene 등분산 검정 결과 p 값이 .05보다 작은 값을 보여 상위 25% 집단과 하위 25% 집단의 모분산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두 집단의 비교를 위해 비모수 검정인 Welch's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 분석 결과 p 값은 .001보다 작아 두 집단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 논의

본 연구는 정신적 오염에 대한 이론적, 임상적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도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Rachman(2006)이 개발한 정신적 오염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표본 A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척도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내적 합치도를 분석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채택된 요인 구조가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 표본 B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강박장애 증상 및 우울과의 상관을 분석하고 강박장애 증상의 상위, 하위 집단이 정신적 오염 수준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함으로써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표본 A의 데이터를 활용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한국판 정신적 오염 척도의 1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표본 B의 데이터를 활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요인 구조가 양호한 적합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탈리아, 터키, 프랑스 등에서도 해당 척도를 자국의 언어로 번안, 타당화하는 가운데 대학생, 일반 성인, 강박장애 임상군을 대상으로 1요인 구조가 적합함을 검증한 바 있다(Inozu et al., 2016; Lebrun et al., 2023; Melli et al., 2015). 본 연구 결과는 정신적 오염 척도의 요인 구조가 범문화적으로 안정적이며, 정신적 오염이 다양한 문화권 및 집단에서 발견되는 심리적 현상임을 시사한다.

또한 척도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내적 합치도를 분석한 결과 양호한 Cronbach's α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정신적 오염 척도가 정신적 오염이라는 심리적 구인을 안정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라는 점을 나타낸다.

수렴 타당도 확보를 위한 상관분석 결과, 정신적 오염은 OCI-R-K의 전체 점수 및 6가지 하위척도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적 오염이 강박장애의 하위 증상으로서 개념화되어 온 것이나, 많은 선행 연구들이 비임상군과 임상군 모두에서 정신적 오염과 기존 강박장애 증상 간의 높은 상관을 보고했다는 사실과 일관된다(Inozu et al., 2016; Mathes et al., 2019; Melli et al., 2015)

OCI-R-K의 하위 유형들 중에서도 특히 세척, 강박 요인은 정신적 오염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세척 하위척도와 높은 상관은 정신적 오염이 오염에 대한 민감성과 불안감에 관련되어 있으며 씻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강박 요인과의 높은 상관은 정신적 오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고를 통제하는 성향이나 생각과 행동의 융합에 관련돼 있다는 점에 기인했을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높은 수준의 통제욕구를 강박장애의 특징으로

꼽고 있으며(김윤희, 서수균, 2008), OCI-R-K의 강박 하위척도에도 '나는 내 생각을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어렵다', '나는 나의 의지에 반하여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나는 자주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힘들다'와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사고와 관련된 문항들이 포함된다(Foa et al., 2002). 정신적 오염을 경험하는 이들 역시 비도덕적이거나 더러운 생각이 떠오른 것만으로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여길 수 있으며(Coughtrey et al., 2013), 혐오스럽고 수용하기 어려운 침투적인 생각들을 수정하고 싶어할 수 있다(Rachman, 2004; Radomsky et al., 2018). Inozu 등(2016)의 연구에서 정신적 오염이 사고와 행동의 융합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이나, Jacoby 등(2018)의 연구에서 정신적 오염이 용납할 수 없는 강박사고와 유의한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인 바 있다는 점 역시 용납하기 어려운 생각들에 대한 통제와 정신적 오염의 관련성을 지지한다.

변별 타당도 확보를 위한 상관분석에서, 정신적 오염과 우울이 보통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두 변인이 낮은 상관을 보일 거란 초기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지만, 이러한 수치는 강박성향이 높을수록 우울을 더 강하게 겪을 수 있다는 점(박정희, 이은희, 2008)이나 강박장애와 우울증의 높은 공진단율(Abramowitz et al., 2007)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BDI-II와의 상관계수가 OCI-R-K과의 상관계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기에 부분적으로 변별 타당도가 지지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OCI-R-K의 상위 25% 집단과 하위 25% 집단을 나누어 정신적 오염에 있어 유의한 점수 차이가 있는지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상위 25% 집단이 하위 25%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정신적 오염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척도가 강박장애 증상을 겪는 내담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군을 변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인들이 정신적 오염이라는 심리적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심리적 구인으로서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전통적으로 오염에 대한 두려움이 물리적 오염물질과의 접촉을 통해서만 유발된다고 이해되던 것과 달리, 더럽거나 비도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이나 사건, 물건을 떠올리는 것이나 심리적 신체적 위해를 겪는 것과 같이 오염 물질과의 물리적 접촉이 배제된 경우에도 불안감과 강박적인 청결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정신적 오염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그 타당도를 검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정신적 오염은 그 자체로 고통감을 유발하는 증상이자 강박장애 증상이나 개입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제안되고 있으나 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특히 국내에서의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 장면에서 본 척도가 한국인이 경험하는 정신적 오염의 속성과 그 영향을 탐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학술적 진전이 이뤄진다면 임상 현장에서 본 척도를 통해 내담자들의 정신적 오염 성향을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강박장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노출 및 반응방지법과 같은 기존 개입의 제한된 효과 이면에는 개입의 표적이 되지 못한 위험 요인 및 기제가 있을 수 있기에(Clauss &

Bardeen, 2022), 정신적 오염을 고려한 상담 개입이 기존 개입의 한계를 보완하고 강박장애 증상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령 혐오 경향성이 높은 내담자의 경우 정신적 오염의 영향으로 인해 더 높은 수준의 강박장애 증상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Melli et al., 2014), 이들의 정신적 오염 수준을 측정, 관리함으로써 강박장애 증상을 조절하는 것을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본 연구는 임상군을 대상으로 연구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강박장애라는 정신질환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연구되어왔고, 강박장애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증상을 겪는 데에 있어 임상군과 증상 심각도 상의 차이만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신적 오염의 1요인 구조와 강박장애 관련 변인과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임상군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본 척도는 아직 측정의 민감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실무 장면에서 증상의 변화 수준을 측정하는데 유용할지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척도의 민감성이 보장된다면 임상 장면에서 내담자의 증상 수준과 호전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척도의 민감도(sensitivity), 특이도(specificity), 절단 점수(cutoff score)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강박장애 임상군을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기준 점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내담자 평가와 연구 참여자 선발 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림 (2019).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강박증상에 미치는 영향: 경험 회피의 매개효과와 책임신념의 조절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 (2013).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초등학교 저학년용영어학습동기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16(1), 185-210.
- 김윤희, 서수균 (2008). 완벽주의에 대한 고찰: 평가와 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581-613.
- 박성훈 (2014.03.10.). 불안한 2030세대... '강박장애' 시달린다.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746001> 에서 검색.
- 박정희, 이은희 (2008).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불안/우울 및 강박증과 진로미결정: 자기통제력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03-123.
- 변해정 (2021.06.07.). 스트레스 사회...강박장애 진료 4년새 23%↑20대 환자 가장 많아. *뉴스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7_0001467282&cID=10201&pID=10200 에서 검색.
- 서원진, 이수민, 김미리혜, 김제중 (2018).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의 현황과 제언. *사회과학연구*, 29(1), 177-193.
- 성형모, 김정범, 박영남, 배대석, 이선희, 안현의 (2008). 한국어판 백 우울 설문지 2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생물치료정신의학*, 14(2), 201-212.
- 이영준 (2002). *요인분석의 이해*. 서울: 석정.
- 이유나, 이장한 (2015). 도덕성 수준과 정신적 오염이 정화욕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 17(6), 3297-3308.
- 이은영, 왕은자 (2017). 중년기 위기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481-503.
- 임준석 (2007). 한국어판 단축형 강박증상목록 (OCI-R-K)의 비임상군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43-55.
- 홍진표, 이동은, 함봉진, 이준영, 서동우, 조성진, 박종익, 이동우, 배재남, 박수빈, 조맹제 (2009). 강박장애 및 아임상형 강박장애의 평생 유병률과 병발성. *대한불안의학회지*, 5(1), 29-35.
- Abramowitz, J. S. (2006). The psychological treatment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1(7), 407-416.
- Abramowitz, J. S., Storch, E. A., Keeley, M., & Cordell, E. (2007).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with comorbid major depression: What is the role of cognitive facto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10), 2257-2267.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Blakey, S. M., & Jacoby, R. J. (2018). The polluted mind: Understanding mental contamination as a transdiagnostic phenomenon. *Journal of Obsessive-Compulsive and Related Disorders*, 17, 1-2.

- Brislin, R. W. (1970). Back-translation for cross-cultural researc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3), 185-216.
- Clauss, K., & Bardeen, J. R. (2022). The interactive effect of mental contamination and cognitive fusion on anxie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8*(4), 517-525.
- Costello, A. B., & Osborne, J. (200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recommendations for getting the most from your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and Evaluation, 10*(7), 1-9.
- Coughtrey, A., Shafran, R., Bennett, S., Kothari, R., & Wade, T. (2018). Mental contamination: Relationship with psychopathology and transdiagnostic processes. *Journal of Obsessive-Compulsive and Related Disorders, 17*, 39-45.
- Coughtrey, A. E., Shafran, R., Knibbs, D., & Rachman, S. J. (2012). Mental contamination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Journal of Obsessive-Compulsive and Related Disorders, 1*(4), 244-250.
- Coughtrey, A. E., Shafran, R., Lee, M., & Rachman, S. J. (2012). It's the feeling inside my head: A qualitative analysis of mental contamination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40*(2), 163-173.
- Coughtrey, A. E., Shafran, R., Lee, M., & Rachman, S. (2013). The treatment of mental contamination: A case series.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20*(2), 221-231.
- Coughtrey, A. E., Shafran, R., & Rachman, S. J. (2014). The spontaneous decay and persistence of mental contamination: An experimental analysis.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5*(1), 90-96.
- Fairbrother, N., Newth, S., & Rachman, S. (2005). Mental pollution: Feelings of dirtiness without physical contac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1), 121-130.
- Fairbrother, N., & Rachman, S. (2004). Feelings of mental pollution subsequent to sexual assaul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2*(2), 173-189.
- Fisher, P. L., & Wells, A. (2005). How effective are cognitive and behavioral treatments for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 clinical significance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12), 1543-1558.
- Foa, E. B., Huppert, J. D., Leiberg, S., Langner, R., Kichic, R., Hajcak, G., & Salkovskis, P. M. (2002). The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hort version. *Psychological Assessment, 14*(4), 485-496.
- Foa, E. B., & Kozak, M. J. (1995). DSM-IV field trial: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1), 90-96.
- Foa, E. B., Liebowitz, M. R., Kozak, M. J., Davies, S., Campeas, R., Franklin, M. E., Huppert, J. D., Kjernisted, K., Rowan, V., Schmidt, A. B., Simpson, H. B., & Tu, X. (2005). Randomised, placebo-controlled trial of exposure and ritual prevention, clomipramine, and their combination in the treatment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1), 151-161.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4th ed.). Prentice Hall.
- Herba, J. K., & Rachman, S. (2007). Vulnerability

- to mental contamina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11), 2804-2812.
- Inozu, M., Bilekli, I., & Ulukut, F. O.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and mental contamination (mc): Psychometric properties of Vancouver obsessive compulsive inventory-MC scale and thought-action fusion-contamination scale. *Dusunen Adam: Journal of Psychiatry & Neurological Sciences*, 29(4), 335-348.
- Jacoby, R. J., Blakey, S. M., Reuman, L., & Abramowitz, J. S. (2018). Mental contamination obsessions: An examination across the obsessive-compulsive symptom dimensions. *Journal of Obsessive-Compulsive and Related Disorders*, 17, 9-15.
- Kang, H. (2013). A guide on the use of factor analysis in the assessment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5), 587-594.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Guilford Press.
- Kline, T. J.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Sage Publications.
- Krause, S., & Radomsky, A. S. (2021). "Was I asking for it?":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perceived responsibility, mental contamination and workplace sexual harassment.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71, 101633.
- Krause, S., & Radomsky, A. S. (2023).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moral self-violation and mental contamin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47(5), 823-833.
- Krause, S., Wong, S., O'Meara, M. G., Aardema, F., & Radomsky, A. S. (2020). It's not so much about what you touch: Mental contamina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ed self-perceptions and contact contamination. *Journal of Obsessive-Compulsive and Related Disorders*, 25, 100507.
- Lebrun, C., Connor, A. D., Dellouve, C., Novara, C., Adloff, V., Capdevielle, D., Bortolon, C., & Raffard, S. (2023). Validation of a french version of the vancouver obsessional compulsive inventory-mental contamination scale (voci-mc) and the contamination thought-action fusion scale (ctaf) in non-clinical and clinical samples.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51(4), 349-361.
- Mathes, B. M., McDermott, K. A., Okey, S. A., Vazquez, A., Harvey, A. M., & Cogle, J. R. (2019). Mental contamination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ssociations with contamination symptoms and treatment response. *Behavior Therapy*, 50(1), 15-24.
- Melli, G., Bulli, F., Carraresi, C., & Stopani, E. (2014). Disgust propensity and contamination-related OCD symptoms: The mediating role of mental contamination. *Journal of Obsessive-Compulsive and Related Disorders*, 3(2), 77-82.
- Melli, G., Carraresi, C., Stopani, E., Radomsky, A. S., & Bulli, F. (2015). Factor structure and temporal stability of the vancouver obsessional compulsive inventory-mental contamination scale (VOCI-MC)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its italian version. *Comprehensive Psychiatry*, 58, 198-204.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 Psychometric theory*. McGraw-Hill.
- Penzel, F. (2017). Clinical presentation of OCD. In C. Pittenger (Ed.),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Phenomenology, pathophysiology, and treatment* (pp. 11-22). Oxford University Press.
- Rachman, S. (2004). Fear of contamina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2(11), 1227-1255.
- Rachman, S. (2006). *Fear of contamination: Assessment and treatment (cognitive behaviour therapy: science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 Rachman, S., Coughtrey, A., Shafran, R., & Radomsky, A. (2014). *Oxford guide to the treatment of mental contamin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Radomsky, A. S., Coughtrey, A., Shafran, R., & Rachman, S. (2018). Abnormal and normal mental contamination. *Journal of Obsessive-Compulsive and Related Disorders*, 17, 46-51.
- Radomsky, A. S., Rachman, S., Shafran, R., Coughtrey, A. E., & Barber, K. C. (2014). The nature and assessment of mental contamination: A psychometric analysis. *Journal of Obsessive-Compulsive and Related Disorders*, 3(2), 181-187.
- Rasmussen, S., & Eisen, J. (1992). The epidemiology and clinical features of OCD.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5(4), 743-758.
- Ruscio, A. M., Stein, D. J., Chiu, W. T., & Kessler, R. C. (2010). The epidemiology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Molecular Psychiatry*, 15(1), 53-63.

원 고 접 수 일 : 2023. 06. 02

수정원고접수일 : 2023. 10. 10

게재결정일 : 2023. 10. 24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Vancouver Obsessive Compulsive Inventory-Mental Contamination Scale

Wooje Lee¹⁾ Changdai Kim²⁾ Chanhoon Park³⁾

¹⁾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Counselor Education and School Psychology,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²⁾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³⁾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Higher Education, Ohio Univeristy

This study aimed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Vancouver Obsessive Compulsive Inventory-Mental Contamination Scale (VOCI-MC). Mental contamination is a psychological phenomenon of feeling dirty without physical contact with a contaminant. It is associated with various symptoms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OCD) and influences the severity of symptoms and treatment outcomes. We developed a Korean version of VOCI-MC through a translation-back translation method and tested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with 550 Korean adults aged 16 or olde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a single-factor structure,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lidated the scale's single-factor structure. The scale demonstrated good internal consistency, and convergent validity was supported by correlations between mental contamination and OCD symptoms. Additionally, discriminant validity was established by the differences in mental contamination levels between upper and lower groups of OCD symptom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mental contamination, Korean version Vancouver Obsessive Compulsive Inventory-Mental Contaminatio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fear of contamination*

부 록

K-VOCI-MC(한국판 정신적 오염척도)

다음 문장에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시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내적으론 더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다.	1	2	3	4	5
2	불쾌한 이미지나 기억을 떠올리면 내적으로 더러워졌다고 느낀다.	1	2	3	4	5
3	아무리 꼼꼼하게 씻어도 더이상 깨끗해지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자주 있다.	1	2	3	4	5
4	만일 다른 사람이 내게 역겨운 말을 하면, 더럽혀졌다고 느낀다.	1	2	3	4	5
5	나는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특정 사람들로 부터 더러운 느낌이나 오염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1	2	3	4	5
6	피부 아래로도 더럽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자주 있다.	1	2	3	4	5
7	어떤 사람들은 겉으론 깨끗해 보이지만 더럽다고 느껴진다.	1	2	3	4	5
8	더러운 것을 직접 만지지 않았는데도 더럽거나 오염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다.	1	2	3	4	5
9	더럽거나 오염되었다고 느낄 때, 나는 자주 죄책감이나 수치심도 같이 느낀다.	1	2	3	4	5
10	나는 자주 더러움에 대한 원하지 않는 불쾌한 생각들을 경험한다.	1	2	3	4	5
11	어떤 물건들은 겉으론 깨끗해 보이지만, 더럽게 느껴진다.	1	2	3	4	5
12	나는 자주 이유도 모른 채 더럽거나 오염되었다고 느낀다.	1	2	3	4	5
13	더럽거나 오염되었다고 느낄 때, 나는 자주 분노도 같이 느낀다.	1	2	3	4	5

K-VOCI-MC(한국판 정신적 오염척도)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4	원치 않는 혐오스러운 생각 때문에 오염되거나 더럽다고 느끼는 때가 자주 있다.	1	2	3	4	5
15	특정한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더럽거나 오염되었다고 느낀다.	1	2	3	4	5
16	나는 자주 내 몸 안도 더럽다고 느낀다.	1	2	3	4	5
17	만약 원하지 않는 혐오스러운 생각들을 떠올리면, 씻어야 한다.	1	2	3	4	5
18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는 내가 더럽거나 오염되었다는 느낌이 들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1	2	3	4	5
19	오염에 관한 염려로 머리가 가득 찰 것 같아서 매우 불안하다.	1	2	3	4	5
20	나는 마음을 정화할 필요성을 자주 느낀다.	1	2	3	4	5